

고대 이즈모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마네 현립 고대 이즈모 역사박물관은 시마네현 이즈모 지방을 중심으로 역사에 관한 자료를 보존 및 전시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나라’로 불리는 이즈모는 지금의 시마네현을 구성하는 3개의 옛 구니(國, 고대 일본의 지방을 구분하는 행정 구역 단위) 중 하나입니다. 일본 초기의 연대기에도 등장하는 이즈모는 일본 신화와 초기 정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3개의 테마별 전시를 통해 고대 이즈모의 정신적 전통과 문화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전시에서는 박물관 바로 서쪽에 있는 이즈모오야시로 신사에 초점을 맞춰 소개합니다. 이즈모오야시로 신사는 이세 신궁과 함께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두 신사 중 하나입니다. 본전(신체(神體)를 안치한 건물)은 초창기 높이가 48m로 알려져 있으며, 전시되어 있는 다양한 모형들은 건축가들이 본전의 외관을 재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전시에서는 8세기에 쓰여진 『이즈모노쿠니 후도키(出雲國風土記)』를 바탕으로 고대 이즈모의 일상생활을 재현했습니다. 세 번째 전시에서는 야요이 시대(기원전 800년~서기 300년)의 동검과 동탁으로 구성된 방대한 자료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이즈모 지방의 두 유적에서 출토된 것으로 대부분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합 전시실은 시마네현의 역사와 문화에 초점을 맞춘 일반 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사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즈모 지방 특유의 고분과 일본 전통 제철법인 다타라 제철의 발전, 이즈모에 신화적인 기원을 두고 있는 스모(일본식 씨름) 등 폭넓은 테마 전시를 선보입니다.

‘이즈모 신화 회랑(신화 시어터)’에서는 이즈모의 신화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 신화 시어터에서는 하루에 4편의 단편 영화를 순차적으로 상영합니다. 영화의 내용을 영어로 해설해 주는 전자기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내 1층에는 종합안내센터, 강의실, 뮤지엄 숍, 물품보관함, 휠체어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또 2층에는 가벼운 식사류와 음료를 제공하는 카페, 3층에는 기타야마 산맥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 테라스가 있습니다.